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설 교

오순절

「그러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행 2:4>

전 영복 목사

오순절은 성령 강림 기념날인 동시에 교회의 창립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유대교로부터 예수교로 소위 기독교라고 하면 혁신이요 개혁이라고 하나 순수한 예수교는 아직 서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하면 오순절은 예수교가 교회로서 형성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구약시대를 예수교의 준비시대라고 하여 예수·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서 완성된 것으로 (구약은 낡은 가죽 부대요 예수는 새 술이라고 생각하면)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단순한 해석은 리로서는 철저하지 못하다. 구약이라는 낡은 부대는 완전히 내어버리고 아주 새로운 예수교라는 새 가죽 부대에 예수라고 하는 새 술을 넣어야 한다. 예수교는 구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시작하였고 예수 교회는 아직 형성의 단서도 잡지 못하였던 때 오히려 예수의 주검으로 좌절된 듯한 예수교가 예수의 부활로서 죽음의 속죄성이 완전히 살아나 좌절이 아니라 기초요 완성이요, 예수의 모든 말씀 (가르침)과 예수의 역사 (행함과 당하심)가 예수의 주검으로써 기록된 것이 되었다. 본질이 완성되면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교의 형태인 교회는 아직 기록되지 못하였다가 예수의 승천 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형태가 성령 강림으로서 이루어진 형태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형태이었

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극히 단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의 지상 명령이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을 즉 교회 형성을 말함이니 세계 교회의 형성은 오순절의 목적이요 열매인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조건이 갖춰져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비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때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로서 가장 육된 말은 「성령이 떠난 교회」라는 말이다. 신자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신자라 한다. 로마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였다. 교회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생각하는 비요 육을 따라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셨다. (롬 8:5-8)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비요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가 교회라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열거하여 세상에 있어서 유평야요 낙원을 보여주는 듯한 윤리적 완성의 모습을 교회라고 하였다. (갈 5:22) 바뀌 말한다면 성령이 떠난 교회는 육으로만 이루어진 인간 단체니 죽음과 불안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피치 못한다고 한다. 지옥을 말한다면 영원한 악의 세계요 성령의 열매를 상상도 못할 분쟁과 증오와 투쟁과 죄악의 굴혈 그대를 그려 낼 수 있으니 성령이 떠난 교회를 지옥 그대로의 교회로 말할 수 있다. 오순절은 한낱 옛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오늘의 교회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도회 7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사도행 1:6-11, 롬 8:24, 25)

소망의 힘

長島의 나환자들을 대할 때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더욱 확실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마비되고 없어져가는 현실……. 우리 모두의 육신이 시간과 함께 쇠하여져서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

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 그 나환자들동리안의 작은집에 모여 기도하는 신도의 무리에게서 나는 어떤 소망의 힘을 발견하였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눈에 안경을 껴고 빛주려진 얼굴을 하였으나 그들은

기쁨을 가졌으며 활기찬 생활이었습니다. 그곳 어느 장로님의 말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고 하며 「우리 사는 이곳이 하늘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 하면서 여유있는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실로 영생을 믿는 믿음의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꿈이나 계획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다시오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하신 이 약속은 진실하고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하늘과 땅은 새 것이 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통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에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어두운 눈에 이땅의 모든 일이 그 소망에 합당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실망에 빠져 슬픔에 잠기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찾는 해결 정의가 빨리 실현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에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 8:25 「소망은 길이 참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꿈이 아니고 예수·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더 소망을 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생활태도의 차이는 한편이 성자요 다른 편은 속된 자라는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두편이 다 죄인이지만 구태어 구별한다면 믿는 사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나도 파산이 되어도 자녀들이 방탕하여도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붙들고도 시체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웃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으며 막다른지경에 다다랐을 때에도 오히려 기다립니다. 이것이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족적인 운명 38도선 가난 사회의 혼돈과 불의 이 모든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의심케 합니다. 그래도 신자는 이 운명을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속에서 민족의 괴로움을 견디고 「오시는 메시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근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보호를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요, 하나님의 걱정하실 일을 자기가 맡아 하려는 교만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짐을 겸손히 다 주께 내어맡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소망하는 자의 표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힘을 한결같이 보여줄 수 있는 여전도회원들이 되도록……기도로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 × ×
어디든지 제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괴로움에 처할 때 함께 하여 주소서
종량심히 일어나 소망 끊어 질 때에 성령말씀
어서와 집에 인도 하소서
《아 멘》

《알림》

●지난 5월12일부터14일까지 후생부와 전도부가 합력하여 나병원 (光明園、愛生園、青松園)을 3개소 방문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신 전국의 여전도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5월20일 모국의 서울여자대학 개교 제1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제일 대한기독교회 총회와 여전도회에 감사의 기념품을 보내 왔습니다.

《이 상》

총무 이 영 숙

■ 국어 이야기 ■

관 용 어 (慣 用 語)



임 광 규

(오오사카 한국어 학교 교장)
(한글 학회 회원)

우리가 길을 걷는때도 그 다니는 길이 있듯이 늘 쓰고 있는 말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것이 문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샛길이나 결길로 다니는 일이 흔히 있다. 그 누군가가 결길을 걸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뒤를 따른다. 이것이 오래되면 그대로 길이 되듯이 말에도 그런 수가 있다. 곧 문법엔 맞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버릇이 되어서 널리 쓰이게 되는 말을 우리는 관용어라고 한다. 이런 관용어가 빠져 이상함을 못 느끼게 되어 버린다.

1) 가령: 딱한 처지에 빠져 어쩔 수 없을 때에 "진퇴유곡(進退維谷)" 이니 또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니 할 경우에 흔히들

"굽도 젖도 못한다."
"보도 사도 못한다."
"술도 뛰도 못한다."
"오무라 말썽 못한다."
"헐수 할수 없다."
"굽도 젖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

문법의 루루로 보면 맞지 않건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2) 또 뜻밖의 일을 당했을 경우에:

"천만 뜻밖."
"천만 의외(千萬意外)"
"천천만 의외(千千萬意外)" 라고 한다.

이 말들도 살펴 보면 문법엔 안 맞는다.

3) 그리고 심한 일을 만나 탄식할 적에

"허! / 쏘한지고."
"허! / 중한지고."
"허! / 흥한지고" 라고 한다.

4) 밤새도록 돌이 술을 마시면서 남에게 권하면서 자기도 자시는 것을

"권커니 잤커니" 라고 하며 말을 서로 진네거나 물건을 주고 받을 경우에 "주커니 받커니" 라고 한다.

이 두 말들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다.

5) 어떤 짐작을 나타낼 적에:

"나가 는가 인가 은가..."
"중에 '보다'를 합쳐서 쓰는 수가 있다."
"너무 큰가보다."
"너무 작은가보다."
"이웃집 개가보다."
"아마 미국 사람인가보다..." 등 얼마든지 있다.

6) 또 남이 어떤 전제 조건을 예상하고 말함에 대하여 그 전제 조건을 객관적 태도로 부인할 뜻을 나타내는 말로:

"크 을 일"에 "세말이지"를 합쳐 쓴다.
"내 말을 믿을세말이지."
"날씨가 좋은세말이지."
"얼마나 클세말이지."
"비가 안 올세말이지."
"그가 좋은 사람일세말이지" 라고 한다.

7) 그리고 "크, 을, 일" 것으로 말하고 보면 의 뜻을 나타내거나, "크 을 일" 것으로 말하고 보면야 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지성 있는 학생일"마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결세.
"사람이 짐승일"마로야 양심이 아랑곳 있겠나.
"정말 인질"마로야 왜 놀고 있겠나.
"나도 함께 해"말로는 일은 쉬 끝날 것이다.
"내 말이 옳을"마로는 난들 마다겠니. =

8)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말할 적에: "크 을 일" 뿐더러가 있다.

"경지도 좋을"뿐더러 공기도 맑다.

"돈도 많을"뿐더러 인물도 좋군.

"공부를 잘할"뿐더러 운동도 잘한다.

"값이 비쌀"뿐더러 귀하다.

9) 그럴 수 밖에 다른 수가 없다는 뜻을 나타낼 적에: "크, 을, 일, 밖에"를 붙여 쓴다.

"달라니 즐"밖에.
"죽으라니 죽을"밖에.

"우는 아기 젖먹"일"밖에.
10) "어차피 그러기로 될 것"이런 의 뜻이나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된 일"이런 야 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크, 을, 일, 는"은 밖에 또는 밖에야가 쓰인다.

"줄"밖에 기분 좋게 줘라.

"해어질"바에야 깨끗이 남되자.

"기왕 간"바에.

"기왕 늦은"바에.

"기왕 먹는"바에 등 해아릴 수 없다.

11)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다 나 는다" 더라이라 손치더라도가 있다.

"키가 크다"손치더라도 이만하면 맞겠지.

"아무리 빨리 걷는다"손치더라도 비행기만은 못하겠지.

"그가 한다"손치더라도 별수 있겠소.

"아무리 많이 먹는"다"손치더라도 소만은 못 먹겠지.

"아무리 날래"다"손치더라도 제비만은 못하다.

"영웅이다"손치더라도 자연은 못 이겼다.

12) 그렇게 할 듯이 행동하는 말로서

"따지려고"들다.

"먹으려고"들다 등이 있다.

13) 어떤 내용의 확실함을

다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말로서 ".....다"뿐이다가 있다.

"가다"뿐이겠는가?

"하다 (허다)"뿐이겠읍니까?

"먹다"뿐이겠느냐? 등이 이것이다.

14) "마찬가지로" 의 뜻으로 "다시"가 있다.

"보다"시피 든든하다.

"아시다"시피 잘 있습니다.

15) "어도" "아도" 보다 더 가정의 뜻이 강한 "더라도"를 다시 더 힘준 말로서 "더라"삼아도가 있다.

"하늘이 무너지"다"삼아도 버티겠다.

"실사" 그렇"다"삼아도 너무하지 않소.

16) 그리하거나 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게"마련이다가 있다.

"먹게"마련이다.

"죽게"마련이다 등이 그것이다.

17) "품에 안고 등에 지고" 의 뜻으로 "안고지고"가 있다. 이것도 관용어다.

18) 남시절에서 고기의 길이 한자나 넘게 큰 것이 잡혔을 적에:

"자나큰 고기가 잡혔다"고 한다. 이것도 문법엔 안 맞으나 그대로 쓰이고 있다.

19)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래도 거의 자신하나 조금은 의아스러울 적에 "모르면 모르되" 그리 될 것이다고 한다. 이것도 관용어다.

20) "여태까지" 의 뜻으로 "지금껏"이 있다. 이 말도 관용어다.

21) 앞의 말 뜻을 뒤집어 뒤 말에 이어 주는 말로:

"에도 는" "때도 는" "때도 은" "때도 에" "불구(不拘)"하고를 보태서 쓰는 말이 있다.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놀고만 있다.

"바쁘신"때도 불구하시고.

"주시는"때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깊은"때도 불구하고 열다 한다.

22) 별 수 없다는 뜻을 전제하는 말로서 "아 어여 보았"자"가 있다.

"하여 (해) 보았"자 별 수 있을라고.

"먹어 보았"자 착하지 못한다.

위에 여러 가지 보기를 들었으나 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들이 왜 문법에 맞지 않는가를 모르고 도리어 의심할 것이다. 평소에 자기들이 흔히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은 더 찾아 보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익은 말들은 그대로 쓰면 된다.

국어공부를새롭게

고 인 봉

「야, 오늘 저녁 좀 만나자」

어느 목요일날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날은 좀 틈이 있으니 만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목요일은 국어 강습이 있는 날이다.

「다음날 하자. 오늘은 국어 강습이 있으니까.」

「응? 어디 가르치러 가나?」 「아냐, 배우러 가는 거야」 「뭐? 국어를 배우러 간다고?」

그 친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구 반문을 하여 왔다. 국어는 잘 하는 데 뭘 배우러 가느냐는 말이다.

그 친구의 하는 말도 알 수 있겠다. 나 자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나는 어렸을때 본국에서

자라났고 日本에서도 中・高等 학교는 민족 학교에 다녔다. 그 위에 民團 사무원으로 일하고 국어 강습소의 선생노릇도 약 1年間 해왔고, 그후 지금까지 국어와는 한 때도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왔다.

지금에 와서는 한글 인쇄소까지 경영해 나가고 있어 정말 국어라면 참 잘하는 편.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국어 선생노릇을 했으면 했지 배울생각은 머리끝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 × ×

그러던 어느날.

우리 인쇄소에 임 광규 선생님께서 복음 신문의 교정을 하러 오셨다가, 「이번에 西成教会에 한국어 학교를 개설했으니 입학하시오」라고 청하었다.

확실히 말해서 청을 받았을 때, 마음속부터 <공부하고 싶다>란 맘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하고 하니

「사쿠라」라도 되어 도와드리자는 맘으로 입학원

서를 낸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자신있게 생각했던 국어 실력이란 있더라고 말할 나위도 없었다.

먼저 「며칠」이란 단어 하나만을 들어보자. 지금까지 이 「며칠」이란 단어를 나는 「몇개」 「몇사람」 식으로 「몇일」이라고 써 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몇(幾)일(日)와는 관계없이 「며칠」이라는 한 단어였다. 또 발음상으로서도 「몇일」이 아니고 「며칠」임이 증명되었다.

정말, 이번 기회로서 국어의 특히 한글의 그 과학적인 클이라는 걸 더욱 깨달았다. 이전 절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국인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무엇보다도 큰 보배라고 본다.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다른 한글 강습소등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강의를 들으면 큰 도움이 될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大阪北部교회)



聖書

生命ある限り

ルカ 23:39~43 金元治牧師

1. 二人の犯罪人がイエスの左右の十字架にかけられた。二人は極悪罪を犯した罪人であるが、その内の一人は自分の罪を悔い神を畏れていた。彼はイエスに向かって神の国に連れて行って下さいと頼んだ。主イエスは今日、私と一緒にパラダイスに入ると確約した。主イエスのこの時の状況は、十字架にかけられる死刑囚としての恥は勿論、血を流す苦悩絶頂に達しているし、群衆からは「神の子よ、自らを救え」とあざ笑われるといった時である。そんな時、しかももう息が引きとられるというその臨終の時、極悪犯罪人の魂を救うというそれこそ、生命ある限り与えられた使命を全うするために尽くされたのである(ヨハネ 19:30)。

2. 十二弟子と共に最後の食事の時にも、いよいよ自分を売るユダが入って来る時でも、そのことを知りつつも、世にいる自分の者たちを愛して彼らを最後まで愛し通された(ヨハネ 13:1)。ヤイロという会堂司の娘が病気で死にかけている時に、ヤイロはひれ伏してお願いをして娘を治すべく一緒に行かれたが、途中で十二年間も長血をわずらっている女の人を治された。会堂司からすれば、身分的に問題にならないし、しかも会堂司の娘は今にも命が危ないその時に一刻をあらそうのにそんな女の人のためにわざわざそこで時間をさいて、その病気を治される事は、一生を通してこの世の人類を愛し通された主を思うことができる(マルコ 5:21~43)。

3. ステパノは石で打ち殺されながらも「主よ、どうぞこの罪を彼らに負わせなide下さい」と祈った。これはイエスの贖罪の恵みを受けた者として、自分もそのようにすべきであるとの信仰による行為である(行 7:60)。パウロも自分の受けた使命のために、キリストの体なる教会のために、キリストの苦しみの足りない所を自分の体をもって補っているといって苦難を喜んで受けた(コロサイ 1:24~26)。ペテロも若い時には、自分の思うままに行動するが、年とってからは他人に連

れられて行くといわれた(ヨハネ 21:18~19)。これはペテロの殉教を意味していた。このように私たちも、生命あ

る限り、主に仕え、隣人を愛しつづける生活をしよう(ヨハネ 5:17, 行 28:23)。(西成教会)

革新もたらす聖霊

ペンテコステメッセージ

WCC(世界教会協議会)議長団は、5月30日のペンテコステの聖日を迎えるに当たって、恒例の傘下全教会へのメッセージを発表した。文中にはWCCのめざす教会の革新への信仰が強く訴えられている。

教会は毎年、聖霊降臨節を迎えます。キリスト教世界はこうして毎年、全き革新を思い起こし、そのために祈る機会を与えられています。聖霊への信仰は御都合主義、精神的荒廃や倦怠、死からの解放を約束します。これらのことは単に、現代人がこの世における教会の使命と本質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以上に危険なことです。というのは、教会は、開かれた自由な精神、若さ、新しい道にふみ出す勇気、新鮮さを、この世の中に生かし続ける使命を神から与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

聖霊降臨節の出来事を思い起こすようにとの我々の共同のよびかけは、すべての教会に革新と新しい生活をもたらし得るものです。これは、信仰告白が強調する「我は聖霊生命を与え給う主を信ず」との告白以上の何ものでもありません。求められているものは、聖霊、生命を与え給う主への信仰なのです。我々は、どんな自己満足に対しても決定的な否定が下されるという認識なしには、信仰告白をくり返すことができません。

我々は今日、あらゆる方面からキリスト教信仰への疑問が寄せられているのを聞きます。我々は制度としての教会への不信を感じます。また多くの人々が、教会の宣教の無力さに幻滅しているのに気づいています。しかし、多くの困難に直面しながらも、やはり我々は「我は聖霊、生命の

与え主を信ず」といわざるを得ないのです。

全くの盲目でもない限り、我々は自分たちの直面している困難がどんなに根強いものであるかを知っています。しかし、聖霊への信仰とは、我々が人間の失敗、自分自身の失敗にすら挫けてはならないと思ひ起こすことなのです。我々の知り尽した面倒な課題神学上の昏迷、人間関係の不満足さ、これらすべての上に今や大きな望みが輝いているのです。その望みは、我々の世代が直面する新しい仕事にとっても、たしかに、ふさわしいものであります。

我々は、ただ個人的な救いしか視野に入れていないようなキリスト教信仰はその名にふさわしくないことを明らかにすべきです。我々はつねに世界が現実にな何を必要としているかを思い起こさねばなりません。しかし、同時にまた「神が統べ始め給う」という確信に裏付けられることなくしては、どんなキリスト教もまた社会的あるいは社会・政治的な私たちも、将来への約束とはなり得ないことが明らかです。

今日のような状況のもとで聖霊への信仰を告白することは、我々はあきらめない「我々は勝利するのだ」(ウィ・シャル・オーバーカム)」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我々の未熟のためにまだ充分太刀打ちできないような問題の山積や、キリスト教世界がくり返し、くり返し犯してきた失敗をこえて、我々は目を高くあげるのです。我々の信仰告白は、真実に、根本的な革新への道を開くものです。ここに聖霊のもつ力があります。こうした信仰こそ、つねに新たにされる霊的生活のすばらしい衝動について何かを告げ

ペテロに



1. ペテロに対して、その父ヨハネが、彼につけた名前はシモンであった。シモンは聞くという意味をもっている。ところが、彼の弟アンデレが主イエスの所に見ベシモンを連れて行った時に、主イエスはシモンを見るなり、彼にケバ、即ちペテロという名前をつけた(ヨハネ 1:42)。それからペテロが、主は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とイエスを救主であると信仰告白をした時には、ペテロ、即ち岩という意味の名前をつけ、しかもこの碧石の信仰の岩の上に神の教会を立てるといわれた(マタイ 16:16~18)。ペテロは、このような信仰による福音宣教の使命としての名前が与えられたわけである(マルコ 1:16~20)。それでもその主の期待にそのような信仰に徹した行動がとれなくて主を拒んだ(ルカ 22:57)。

2. この失敗のペテロに対して、復活の主はマリヤにガラヤでペテロに会う度いと伝えなさいと言われた。この時に、ペテロを名指していわれたことでペテロは、不信仰の自分を忘れないで再び呼んで下さったことで信仰をとり戻した(ルカ 22:32)。このペテロに対して、最後の止めをさす意味で三度も主は、ヨハネの子シモンよ、わたしを愛するか、といわれた(ヨハネ 21:17)。そのことはいったん召命にあづかったものは、どんなに変更がみられるような行動をとっても、最後まで

おかけて使命を全うさせる主の御旨なのである(ヨハネ 21:28)。ガラヤであいたと言われたのは、始めて主に召された場所である。そこでもう一回、召命を受けた初心の決意に立ちかえらすためである(マタイ 4:18)。

3. 私たちに対しても、主は名ざして呼んでおられる。私たちが復活の主を信ずることは主と共に復活し、永遠の生命を得るためである(ロマ 6:11)。この事だけであればあまりにも利己的すぎる。主の復活を信ずることは、永生にあづかる恵みに感じて信仰による福音の証し、即ち伝道する使命も与えられていることであり、そのことのためには、多くの困難をも共に受ける覚悟をせねばならない(行 4:15~16)。信ずる者の群は実に少い。それは狭い道だからである(ルカ 13:22~24)。この困難が、私たちを祝福と恵みにあづからせる道であることを知って、私たちを名ざして呼ぶ主に従って(こう)へブル 10:19)。

知らせるものです。

聖霊の力強い風は、あたたかも広野の上を吹くかのように全教会の上に吹き渡ります。しかし、それは同時に、ひとつひとつの教会の会衆の上にも吹いてくるものです。そこで、教会員たちは、ひとつの教会は単なる地域的な、組織上の単位でなく、世界的なひろがりをもつ、大きなキリスト者の共同体の一部であるこ

とを知るに至るでしょう。

1971年聖霊降臨節
世界教会協議会議長団
長清子(日本)、総主教ゲルマン(ユーゴスラビア)
監督ハンス・リルエ(ドイツ)、アーネスト・ペイン(英国)、ジョン・C・スミス(米合衆国)、主教A・H・ズーラー(南ア連邦)
同名誉議長 W・A・ヴィサートフト

印刷のことなら……

新聞・カタログ・雑誌
ポスター・事務用印刷
韓国文翻訳・写植・印刷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06)716-5046(〒544)

マルクス主義の宗教批判 (2)

ゴルヴィツァーの＜マルクス主義の
宗教批判とキリスト教信＞を読んで

品川教会 金 挂 昊 牧師

第三点は、マルクス主義の虚無性である。マルクス主義は、完全社会を実現する所にすべての意味を与えた。つまり、宗教批判と反宗教闘争によって天国における神も、永遠の生命も、楽園をも徹底的に否定され、それによって天国に対する夢と希望を失った大衆に、マルクス主義は未来の完全社会を約束した。ところが、未来の完全社会に対する望みは次第に消えつつある。それは社会主義社会において完全に解決しようと思われた人間の自由、平等、利己心、背反、不安、罪、死などの諸問題が必然として未解決の問題として残っているからである。従ってマルクス主義の期待したような完全社会が実現しそうにもない。もし目差していた完全社会が実現しないとすれば、マルクス主義は必然的に虚無的になり、暴力的になる。そのためにマルクス主義は、その限界を超えて、人間が人間のために神となって、人間のすべて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試み、人間の窮極的な問題を扱い、そのために暴力革命を合法化し、全体主義を防ぐことができず、超えることのできない人間の限界である隣人を犯し、支配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それゆえに、＜人間が神本位ではなく、人間本位に生きる時、悪魔に似る＞といった Augustinus の言葉は正し

い。

著者は、マルクス主義の社会政治闘争は合理的で、その正当性をもつ。だが、その限界を超えて、人間が人間のために神になって、すべて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人神思想＞が問題であり、それがマルクス主義の虚無性であり、この虚無性はキリスト教信仰との対話によって克服されるという。それは、キリスト教の復活信仰によって人間が担うことのできないすべ

て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絶望的闘争から解放され、自分の力に合う問題だけを改革して、それ以上のものを神に委ねる。この復活信仰は、人間の限界にぶつかった場合、挫折や絶望することなく、自分のことだけを改革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以上の問題については神に期待をかける。この復活信仰のみがマルクス主義の虚無性を克服して、生きることに深い意味を与える。

マルクス主義は啓蒙運動から始まった近代精神の内容と結実を含んでいる。それゆえにマルクス主義との対決は近代精神の中心主題との対決をも含んでいる。そのために私達は、マルクス主義との対決なしに、この時代の潮流の中に自分自身を正しく位置づけることはできない。(終)

欲、貧欲、憎愛、嫉妬、人を蹴り落す自己弁護や、自己誇示等から出て来る事があまりにも多いのも見逃すことは出来ない。

希望的で、楽観的な見方は、好ましいが、応々にして、人間を甘く見過ぎて、この隠された深いものを見落すか、無視することが多い。

善人だと思っている人が、人を騙したり、裏切ったりして、結局は悪人だと思って失望するのは、こういう理解の不足から来ている。騙す人が悪人で、騙される人間が善人だと見ても、それも誤りなのであって、人間は、そうならざるを得ない時が多いが、問題は、已を絶滅させる程の、真の闘争を自己が自己に対して、又他との関係でやっているかという所にあり、真の闘いのない所には、何の善きものが出て来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人間が、本当の隣人となろうとするならば、この様な激しい、真の闘争を通しての和解に到ってこそ為しうるのであって、忍耐であれ、罵倒であれ、格闘であれ、冷・熱戦争であれ、それらの血みどろの闘争、即ち、真実なるものを生み出すための苦闘を経る以外に、和解とか、真実なるものとか、善きものとかは、在り得る筈がないと云うことである。

それ故に、たとえ、善きもの、尊いもの、貴重なものが、易しく与えられるならば、貰った者にとっては、それらは死んだものに等しい。それらを自分のものにする為の闘争が一から始められ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人間には、生きること、それ自体が闘いであり、生きるとは、創造的に物を産み出

し、それを自己のものにして行く前進運動であり、精神的なものにして、物的なものにして、自己の影響領域を拡げて行くことであり、同時に、最も個人主義的な意識から、全体的共同意識へと進む過程であると云える。

そして、その過程の中で、何時、一步下り、何時忍耐し、何時、一步前進するのか？何時、立ち上がり、意識を、意志に移し、それを行動とするのか？

そして、どれが、より小さい悪であり、どちらが、よりましなのか、これらを知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しかも、非常に大切な事なのである。最近、WCCが、アフリカの解放戦線側に武器を買う費用を送る事に決定したという事は、全く、画期的なことである。

しかし、解放戦線側が、政府側より以上に悪となり得る場合もある故に、絶えず、見張る働きというものが、欠かす事のできない重大な役割になっている。今日、世界教会が、これ程までにも沈滞して、了った理由の一つに、人間理解の認識不足から来ているものがある。

全世界にある諸教会や諸団体が、各種の事業（学校、病院、社会事業 その他）を起し、世界伝道にも力を入れて来た。しかし、本当に人々に喜ばれ、感謝されているのか？その社会の助けになっているのか？本当に効果的に運営されているのか？等は、やっている当事者には分らないものである。そこには、どこまでも客観的な冷酷とも見える程の厳しい批判の目をもって判断すべき見守り役が徹底されず、当事者の自己満足的な、当事者が自分で、主観的に作製した報告のみに頼って来た所に重大な誤りがある。

斗 争 の 神 学 — 7 —

岐 阜 教 会 牧 師

金 承 俊

自己否定によって、絶えず自らと闘って進む人間は、どこまで進むか分らない程、無限ともいい得る程の広さ、深さ、高さに進む故に、人間を、あまりに軽々しく、表面的に見たり、扱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と同時に、これ程すばらしい存在が、罪、汚れ、嫉妬、憎悪、肉欲、貧欲、名誉欲、殺意、復讐、誹り、悪口、自己正当化等によって苦しめられ、それと知りつつその虜となることが多いのも事実である故に、人間を、あまりに過大評価したり、完全なるものと見ることも誤りなのである。

それだから、聖書は、人間の完全な自由による自主独立というものを全く否定し、絶対他者なる神の御言（霊を通して働く）に、自ら進んで聞き従って行こうとする人間にこそ、あらゆる状況に狂わせられたりせず、自らの邪心からも脱して、自由があるとしている。

人間は、現実には、ある拘束にはめられないと、動かないことが多く、全き自由のつもりで、又、隣人の真の友のつもりで動くその行為そのものが、実は、経済的状況で押し出されていたり、自己の名誉心の満足の為であったり、肉

母国募金芳名録

在日韓国基督教教会館

장종교회	30,000
승동교회	23,320
김치호장로 (合同)	50,000
洪容乾장로	30,000
光州中央教会	100,000
全国牧師長老祈禱會 (合)	102,000
裡里中央教会	23,000
〃 성락教会	15,000
全州西門教会	25,000
〃 東部教会	10,000
郡山개복동教会	24,700
郡山中央教会	10,000
大田南部教会	10,500
南山中・高等学校	5,000
永信中・高等学校 (朴在石)	50,000
聖光中・高等学校 (李圭元)	50,000
金鍾弼	50,000
대청교회	10,000

종현교회	100,000
釜山監光教会	22,800
釜山송도教会	10,000
釜山온천제일교회	12,835
釜山부전교회	40,100
釜山中央教会	43,550
〃 당감교회	7,000
貞信中高校	50,000
大光中高校	50,000
平安教会	50,000
서울연동교회	64,000
경기도안성장로교회	10,000
열광中高校	50,000
崇実中高校	50,000
예장대구노회	50,000
大田中央教会	64,000
平安教会 (안승화)	50,000
김광철장로	20,000

韓国神学大学	50,000
유환섭 (유구화)	100,000
池東方長老	20,000
전포교회	10,000
루터교회 (池元祥)	50,000
黃泰恩	50,000
保聖女子高等学校	200,000
大邱北一教会 (朴紀東)	50,000
崔泰河	100,000
大邱 (金秋虎)	50,000
釜山鄭泰星	200,000
釜山奎田教会 (朴讚洙)	50,000
敎新高校 (李夏榮)	50,000
金螢南	50,000
李奉守	50,000
光成中高校	50,000
유관우	20,000
張河龜	20,000